

■ 최신 해외정보 - 미얀마 ■

## 미얀마 은행 개방의 물결

최근 미얀마 중앙은행은 11개의 미얀마 민간은행에 3종류의 외환(USD, Euro, Singapore dollar)을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은행들은 Kanbawza Bank, Cooperative Bank, Myanmar Industrial Development Bank, Myawaddy Bank, Inwa Bank, Myanmar Oriental Bank, Asian Green Development Bank, Ayeyawaddy Bank, Myanmar Pioneer Bank, United Amara Bank and Tun Foundation Bank입니다. 이로써 이 민간은행들은 외환 은행업무(foreign currency banking services)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무역과 투자와 관련한 거래를 다루는 국제적인 은행들과 연결되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 은행들은 계좌의 개설, 수표의 지급 및 회수, 송금 및 자금 이체에 관한 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T/T 송금(Telegraphic Transfer) 및 신용장(Letter of Credit) 발행은 정부 은행인 MICB, MFTB에서만 가능하였으나, 향후 민간은행에서도 이들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송금관련 업무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4년부터 외국계은행들이 미얀마 기업과의 합작투자의 형태로 미얀마 진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다수의 외국계은행들이 미얀마 진출을 위해 투자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외국계 은행들의 미얀마 직접진출도 허용하는 단계적 금융시장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화통신에 의하면 현재 미얀마에는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중국, 프랑스,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태국, 캄보디아, 브루나이, 베트남, 미국과 영국계 은행의 대표사무소가 있으나, 은행영업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본격적인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미얀마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르면 올해 안이나 내년 초에 미얀마 최대상업도시 양곤에 주재원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산업

은행 관계자는 “조만간 실무자들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를 돌아보며 시장을 파악하고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주재원을 파견할 예정이고 가장 유력한 곳이 미얀마”라고 밝혔습니다(2012년 6월 29일자 아시아투데이).

기업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미얀마에 내년 상반기 사무소를 열고 그 이후에 현지 은행과의 합자은행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얀마의 개방 속도는 중국과 베트남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돼 서둘러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미얀마 진출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012년 7월 1일자 파이낸셜뉴스).

미얀마 시장의 개방과 다수 한국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에 따라 우리 은행들의 미얀마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